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Information Use Behaviors of Professors in Design Field

이 명 희(Myeong-Hee Lee)*

정 혜 련(Hye-lyun Jung)**

초 록

본 연구는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분야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세부전공, 연구경력, 연령에 따라 설문지를 배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 목적, 이용 경로, 자료유형별 이용 정보원,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디자인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회색정보원의 체계적인 수집, 전공자료 우선수집정책의 실시, 국내·외 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적극적 수집과 홍보, 주제별 정보활용교육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ffectively provide professors in the design field with information services by identifying their information use behaviors. Data were collected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after dividing the specialties of 110 professors in the design field into 4 areas. The results were made in terms of purposes of use and the acquisition channels,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difficulties of information acquisition and the library use of the institution. Some suggestions were shown as follows: collection of gray literatures such as exhibition data, seminar data, reports and pamphlets, purchase of web databases in design field,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ncluding the use of domestic and foreign design databases for the professors and the construction of web directories on the library web sites.

키워드: 디자인분야, 교수, 정보이용행태, 이용자연구, 이용연구

Design Field, Professors, Information Use Behaviors, User Study, Use Study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ehelee@smu.ac.kr) (제1저자)

** 상명대학교 대학원(gpfus1041@naver.com)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2년 2월 10일 논문심사일자 : 2012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3월 23일

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전문정보의 증가와 더불어 각 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요구도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계의 전문분야 이용자 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연구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인문·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비롯한 예술 분야에서도 이용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디자인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며, 나아가 디자인은 부가가치를 넘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 핵심가치로서 미래경쟁력의 핵심역량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나수임 2002). 디자인 분야 연구자들은 미적, 심미적, 기능적 창작물을 생산하는 업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디자인의 형태 및 기능의 혁신을 위해 소비자 기호 및 생활 습관에 대한 트렌드 정보, 새로운 소재 및 가공기술 정보 등을 디자인개발에 활용하는 업무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보다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타 전문분야와 다른 정보원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고유한 정보이용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관련 기초기반 자료정보와 전시 및 세미나 관련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디자인 분야의 정보제공과 정보시스템적인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되고 있다(김규훈 2004). 따라서 디자인 분야의 원활한 정보제공과 개선된 정보시스템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디자인 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대학도서관에서 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2007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에 의하면, 112개 대학교의 594개 디자인분야 학과들은 예술대학, 미술대학, 공과대학, 디자인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등에 소속되어 다양한 학과명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디자인 분야는 5만명 이상의 학생들과 2천명 이상의 교수들이 교육환경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학제적 분야이다(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분야의 학자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디자인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정작 이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학도서관 분야에서는 디자인 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그들의 정보이용 행태에 관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디자인 분야의 연구자와 종사자들의 수의 방대함과 비례하여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는 달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디자인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이용 행태를 연구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디자인분야 문헌의 인용분석을 통해 디자인분야 연구자들의 문헌 이용행태의 특성에 관해 논의한 김순희(2003)의 연구를 비롯해 산업디자인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김규훈 2004). 그러나 이러한 몇몇 연구만으로는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 이용자집단의 정보이용행태를 충분히 규명할 수는 없으며, 아직까지 디자인분야 종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디자인분야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실제적인 정

보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만족하는지 불만족 하는지, 정보수집을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들은 어떤 유형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 이용자집단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별로 수행된 바 없는 디자인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이용행태에 대해 조사·분석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전반적인 정보이용행태를 살펴보고, 둘째,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연령, 연구경력, 전공에 따라 정보이용목적, 정보입수경로, 자료유형별 이용정도, 국내자료 및 외국자료 이용률, 이용자료의 최신성, 정보입수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연령, 연구경력, 전공에 따라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빈도, 정보서비스 이용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2. 선행연구 개관

국내 디자인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며, 주로 자연과학

과 응용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연구경력, 이용자료의 유형, 자료이용 목적, 정보입수 경로, 도서관 이용빈도 등의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 이승채(1987)는 물리학자들의 학술정보 이용과 전달에 관하여, 김태승(1996)은 자연과학 분야의 4개 연구소와 대학에 속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박일종과 백수연(2001)은 전자공학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변성희 등(2002)은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준영 등(2003) 역시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이용행태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국방연구개발연구원 연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송종호와 오동근(2008)의 연구가 있다.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이용자 연구에서 최은주(1996)는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정보 이용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박준식 등(2000)은 사회과학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의 난이도, 자료의 시간경과 정도 등에 대해 조사하고,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원하는 정보의 리스트 및 원문의 입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디자인분야에서 이루어진 이용자연구의 양은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김순희(2003)는 디자인학의 문헌 이용행태를 분석한 인용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김규훈(2004)은 디자인 전문회사, 기업체 디자인실의 산업디자인분야 연구자들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규명하였다.

이용자연구가 일찍부터 발달했던 외국에서는 자연과학과 응용과학분야에서 연구자들을 대상

으로 이용자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졌다. Chen (1974)은 6개 대학의 물리학자 및 화학자를 대상으로, Brown(1999)은 수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 행태를 조사하였다. Majid 등(2000)은 말레이시아 농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Ellis(1993) 등은 사회과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의 정보이용 패턴을 비교분석하여 그들의 정보이용 경향이 다름을 밝혔다.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외국의 이용자 연구도 다수 수행된 바 있다. Stieg(1981)는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Chung(1990)은 사회과학자들을 대상으로, De Tiratel(2000)은 아르헨티나 대학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Marouf와 Anwar(2010)는 사회과학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정보원 이용 정보접근채널, 도서관 이용빈도 및 장애요인, 이용자료의 유형과 언어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외국에서 디자인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용자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콜럼버스 예술디자인대학의 패커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인구통계적 요소, 도서관 직원, 시간, 시설과 장서에 대해 설문조사한 연구가 있다(Strautz 1992).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이용자연구는 주로 과학기술분야 및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들이다. 그리고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 교수들, 대학원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통

한 조사연구법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에 비해 인문학 및 예술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특히 응용예술인 디자인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디자인분야 이용자집단의 정보이용행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설계

3.1 변인 설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인구통계적 요인 중 사용빈도가 높은 연령, 연구경력, 전공분야를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였고, 정보이용과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두가지 종속변인을 세부변인으로 나누어 보면, 정보이용에 관한 세부 변인으로는 정보이용목적, 정보입수경로, 국내자료 및 외국자료 이용률, 이용자료의 최신성의 네가지 세부변인으로 나누어지고,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에 대한 세부 변인에는 도서관 이용빈도, 정보서비스 이용정도의 두가지 세부변인으로 나누어진다.

3.2 가설 설정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행태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연령, 연구경력, 전공에 따라 정보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1〉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연령, 연구 경력, 전공에 따라 정보이용목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2〉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연령, 연구 경력, 전공에 따라 정보입수경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3〉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연령, 연구 경력, 전공에 따라 국내자료 및 외국자료 이용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4〉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연령, 연구 경력, 전공에 따라 이용자료의 최신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연령, 연구 경력, 전공에 따라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1〉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연령, 연구 경력, 전공에 따라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 빈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2〉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연령, 연구 경력, 전공에 따라 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설문지 구성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본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2명의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들의 검토를 거친 후 수정 보완되었다. 설문문항은 개인적 배경 3문항, 정보이용 관련 10문항,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 관련 5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서는 명목척도 및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이용하

지 않는다, 5점: 항상 이용한다)를 사용하였다.

3.4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 대상의 질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학문영역평가 디자인분야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그룹 평가를 받은 51개 대학 중에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15개 대학을 먼저 파악하였다. 15개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 총 260명 중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패션디자인 전공교수 2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1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을 보내거나 교수연구실 및 학과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였고, 총 110부(회수율 55%)를 회수하여 SPSS Statistics 17.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가설은 $p < 0.05$ 수준에서 검정되었다.

4. 분석결과

4.1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응답자 110명에 대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55세 30.0%, 41-45세 19.1%, 56세-60세 18.2%의 순서로 분포되고, 연구경력에서는 20년-25년 미만의 그룹이 29.1%, 25년 이상 24.5%, 15년-20년 미만 20.9%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 전공별로는 제품디자인 전공이 33.6%, 시각디자인 30.9%, 패션디자인 27.3%, 환경디자인 8.2%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4.2 정보이용에 관한 분석

4.2.1 정보이용 목적

모든 질문내용은 리커트 5점척도(1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5점: 항상 이용한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에서 디자인 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 목적을 '연구과제 수행'을 비롯하여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광의로는 '연구과제 수행'이나 '연구논문 작성', '학술 발표 준비' 등이 모두 '연구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인 대학교수들의 정보이용 목적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위해서'라는 포괄적인 용어 대신에 '연구를 더욱 세분화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정보이용 목적을 표시하게 한 결과, 정보이용목적은 '연구논문 작성' 24.5%, '최근 연구결과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3.6%, 연구과제 수행을 위

해' 21.8%, '강의준비' 20.0%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보이용 목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6-50세(38.9%), 56-60세(35.0%)의 경우에는 '연구논문 작성을 위해'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61세 이상(30.8%)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경력 별로는, 20년-25년 미만(37.5%)의 경우에만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구경력이 가장 긴 25년 이상의 경우는 '강의 준비'를 위한 목적이 44.4%로 비교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경력 20년 미만의 응답자들은 주로 '최근 연구결과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환경디자인(44.4%), 패션디자인(40.0%)의 경우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제품디자인의 경우는 '강의 준비'(29.7%)와 '최근 연구결과나 연구

<표 1> 정보이용 목적

구분		연구과제 수행	연구논문 작성	학술발표 준비	강의 준비	전시 및 공모전 준비	전공 관련 연구결과, 동향 파악	전체	유의도
연령	36-40세	빈도(%)	1(20.0)	1(20.0)	0(0.0)	0(0.0)	1(20.0)	2(40.0)	x ² =22.824 df=25 p=.588
	41-45세	빈도(%)	6(28.6)	4(19.0)	0(0.0)	3(14.3)	2(9.5)	6(28.6)	
	46-50세	빈도(%)	2(11.1)	7(38.9)	0(0.0)	1(5.6)	2(11.1)	6(33.3)	
	51-55세	빈도(%)	6(18.2)	7(21.2)	1(3.0)	10(30.3)	1(3.0)	8(24.2)	
	56-60세	빈도(%)	5(25.0)	7(35.0)	0(0.0)	5(25.0)	1(5.0)	2(10.0)	
	61세 이상	빈도(%)	4(30.8)	1(7.7)	0(0.0)	3(23.1)	3(23.1)	2(15.4)	
연구 경력	5-10년 미만	빈도(%)	2(33.3)	0(0.0)	0(0.0)	0(0.0)	2(33.3)	2(33.3)	x ² =34.377 df=20 p=.024**
	10-15년 미만	빈도(%)	4(18.2)	5(22.7)	0(0.0)	2(9.1)	4(18.2)	7(31.8)	
	15-20년 미만	빈도(%)	4(17.4)	7(30.4)	0(0.0)	4(17.4)	0(0.0)	8(34.8)	
	20-25년 미만	빈도(%)	8(25.0)	12(37.5)	1(3.1)	4(12.5)	1(3.1)	6(18.8)	
	25년 이상	빈도(%)	6(22.2)	3(11.1)	0(0.0)	12(44.4)	3(11.1)	3(11.1)	
전공	시각디자인	빈도(%)	12(35.3)	8(23.5)	0(0.0)	7(20.6)	2(5.9)	5(14.7)	x ² =22.441 df=15 p=.097
	제품디자인	빈도(%)	7(18.9)	3(8.1)	0(0.0)	11(29.7)	5(13.5)	11(29.7)	
	환경디자인	빈도(%)	1(11.1)	4(44.4)	0(0.0)	1(11.1)	1(11.1)	2(22.2)	
	패션디자인	빈도(%)	4(13.3)	12(40.0)	1(3.3)	3(10.0)	2(6.7)	8(26.7)	
전체	빈도(%)	24(21.8)	27(24.5)	1(0.9)	22(20.0)	10(9.1)	26(23.6)	110(100.0)	

동향 파악(29.7%)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연구논문 작성'(8.1%)을 위한 목적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설 h1-1〉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구경력에 따른 정보이용목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령, 전공에 따른 정보이용목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h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2.2 정보입수 경로

〈표 2〉에서 디자인 분야 교수들의 정보입수경로를 살펴보면, '본인 소장 자료를 통해' 31.8%, '학회, 전시회, 세미나 등의 전문단체 활동을 통해' 24.5%, '외부 정보서비스기관을 통해' 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입수경로 중에서 '본인 소장 자료를 통해' 항목을 정보입수경로에 포

함시킨 것은 일견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정보를 이용할 때 외부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보다 자신의 서재나 연구실 등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Chen 1974; Majid 등 2000; Marouf and Anwar 2010).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본인소장 자료를 통해'라는 항목을 정보입수경로에 포함시켰다. 정보입수경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1세 이상(76.9%), 51-55세(33.3%), 46-50세(27.8%)의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 소장 자료'를 통한 정보입수경로가 다른 어떤 경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경력별로는 25년 이상(51.9%), 15년-20년 미만(30.4%), 20년-25년 미만(28.1%)의 경우 '본인 소장 자료'를 통한

〈표 2〉 정보입수 경로

구분		본인 소장자료	동료, 전공 관련 전문가	소속기관 도서관	외부정보 서비스 기관	출판사 및 서점	학회, 세미나, 전시회	전체	유의도
연령	36-40세	빈도(%)	1(20.0)	1(20.0)	1(20.0)	2(40.0)	0(0.0)	0(0.0)	5(100.0)
	41-45세	빈도(%)	4(19.0)	0(0.0)	2(9.5)	9(42.9)	0(0.0)	6(28.6)	21(100.0)
	46-50세	빈도(%)	5(27.8)	2(11.1)	3(16.7)	3(16.7)	2(11.1)	3(16.7)	18(100.0)
	51-55세	빈도(%)	11(33.3)	3(9.1)	4(12.1)	3(9.1)	3(9.1)	9(27.3)	33(100.0)
	56-60세	빈도(%)	4(20.0)	3(15.0)	2(10.0)	1(5.0)	2(10.0)	8(40.0)	20(100.0)
	61세 이상	빈도(%)	10(76.9)	0(0.0)	0(0.0)	2(15.4)	0(0.0)	1(7.7)	13(100.0)
연구 경력	5-10년 미만	빈도(%)	0(0.0)	1(16.7)	2(33.3)	2(33.3)	1(16.7)	0(0.0)	6(100.0)
	10-15년 미만	빈도(%)	5(22.7)	0(0.0)	2(9.1)	8(36.4)	0(0.0)	7(31.8)	22(100.0)
	15-20년 미만	빈도(%)	7(30.4)	1(4.3)	6(26.1)	4(17.4)	1(4.3)	4(17.4)	23(100.0)
	20-25년 미만	빈도(%)	9(28.1)	5(15.6)	2(6.3)	2(6.3)	5(15.6)	9(28.1)	32(100.0)
	25년 이상	빈도(%)	14(51.9)	2(7.4)	0(0.0)	4(14.8)	0(0.0)	7(25.9)	27(100.0)
전공	시각디자인	빈도(%)	10(29.4)	2(5.9)	3(8.8)	6(17.6)	3(8.8)	10(29.4)	34(100.0)
	제품디자인	빈도(%)	19(51.4)	2(5.4)	5(13.5)	2(5.4)	0(0.0)	9(24.3)	37(100.0)
	환경디자인	빈도(%)	2(22.2)	1(11.1)	2(22.2)	1(11.1)	2(22.2)	1(11.1)	9(100.0)
	패션디자인	빈도(%)	4(13.3)	4(13.3)	2(6.7)	11(36.7)	2(6.7)	7(23.3)	30(100.0)
전체	빈도(%)	35(31.8)	9(8.2)	12(10.9)	20(18.2)	7(6.4)	27(24.5)	110(100.0)	

입수경로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경력이 가장 긴 25년 이상의 경우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15년 미만(36.4%)의 경우 '외부 정보서비스기관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의 경우에는 '본인소장 자료'를 통한 정보입수가 51.4%로 다른 전공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으며, 패션디자인분야 교수들은 외부 정보서비스기관(36.7%)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시각디자인분야 교수들은 학회, 전시회, 세미나 등(29.4%)의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한편, 환경디자인분야 교수들은 소속기관

도서관(22.2%)과 같은 정도로 출판사나 서점(22.2%)을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설 h1-2〉의 검증을 위해 연령, 전공, 연구경력에 따른 정보입수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2〉는 모두 채택되었다.

4.2.3 국내자료 및 외국자료 이용

국내·외 자료 이용률을 살펴보았을 때(〈표 3〉 참조), 국내자료의 평균 이용률은 54.2%, 외국자료의 평균 이용률은 45.8%로, 응답자들은

〈표 3〉 국내자료 및 외국자료 이용률

구분	빈도(명)	국내자료		외국자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36-40세	5	44.0	19.494	56.0	19.494
	41-45세	21	54.3	23.361	45.7	23.361
	46-50세	18	47.5	23.902	52.5	23.902
	51-55세	33	54.5	18.723	45.5	18.723
	56-60세	20	60.0	14.868	40.0	14.868
	61세 이상	13	57.7	15.359	42.3	15.359
F		1.114		1.114		
P		0.358		0.358		
연구경력	5년-10년 미만	6	40.0	20.000	60.0	20.000
	10년-15년 미만	22	51.4	24.745	48.6	24.745
	15년-20년 미만	23	50.4	22.049	49.6	22.049
	20년-25년 미만	32	55.2	16.534	44.8	16.534
	25년 이상	27	61.9	14.152	38.1	14.152
F		2.223		2.223		
P		0.071		0.071		
전공	시각디자인	34	61.2	14.927	38.8	14.927
	제품디자인	37	48.6	20.023	51.4	20.023
	환경디자인	9	45.0	25.981	55.0	25.981
	패션디자인	30	56.0	20.103	44.0	20.103
F		3.318		3.318		
P		0.023**		0.023**		
전체	110	54.2	19.760	45.8	19.760	

국내자료를 외국자료보다 약간 더 많이 이용하였다. 이 결과는 국내자료(약 30%)보다 외국자료(약 70%)이용이 훨씬 높아 외국자료 의존 비율이 매우 높다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결과(최은주 1997)와는 상당히 다른 이용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인문과학적 성격에 가깝다. 김순희는 디자인분야 연구자들이 국내문헌의 입수 용이성, 외국문헌 안내 2차 서지자료의 부족, 외국어 능력 부족 때문에 국내문헌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003).

〈표 3〉에서 연령별로 살펴보면 41-45세, 51-55세, 56-60세, 61세 이상의 그룹은 외국자료보다 국내자료를, 그리고 36-40세, 46-50세의 그룹은 국내자료보다 외국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연구경력별로는 5-10년 미만의 그룹만 국내자료보다 외국자료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그룹은 외국자료보다 국내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경력이 가장 긴 25년 이상의 그룹이 61.9 : 38.1(국내자료 : 외국자료)의 비율로, 국내자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공별로는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전공은 국내자료보다 외국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였지만 나머지 두 그룹은 국내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였는데, 특히 시각디자인 전공은 61.2 : 38.8(국내자료 : 외국자료)의 비율로 국내자료의 이용이 높았다.

〈가설 h1-3〉의 유의성 검정에서 전공에 따

른 국내자료 및 외국자료 이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령, 연구경력에 따른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h1-3〉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4〉에서 주로 이용하는 외국자료의 생산국 순위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80.9%)은 미국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영국(8.2%), 일본(6.4%)의 것도 약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분야 대부분의 교수들은 미국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영국, 일본에서 생산된 자료도 종종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2.4 이용자료의 최신성

이용자료의 최신성을 〈표 5〉에서 살펴본 결과, 최근 1년 이내의 자료(40.4%)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최근 2-5년 내(31.8%), 최근 6-10년 내(17.2%), 10년 이상(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보면, 최근 5년 내에 발행된 자료의 이용률이 72.2%로 나타나 디자인분야 교수들은 최신자료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 내에 발행된 자료의 연령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46-50세(81.7%), 41-45세(79.3%)의 경우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61세 이상(59.7%)의 경우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연구경력별로 최근 5년 내에 발행된 자료 이용률을

〈표 4〉 외국자료의 생산국

국명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	기타	계
빈도	89	9	7	2	0	0	1	2	110
비율	80.9%	8.2%	6.4%	1.8%	0.0%	0.0%	0.9%	1.8%	100.0%

〈표 5〉 이용자료의 최신성

구분	빈도 (명)	최근 1년 이내		최근 2-5년 내		최근 6-10년 내		10년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36-40세	5	28.0	8.367	46.0	15.166	18.0	10.954	8.0	8.367
	41-45세	21	48.1	16.619	31.2	10.944	12.9	8.884	8.3	6.583
	46-50세	18	55.8	24.041	25.9	11.787	11.4	9.519	6.9	7.696
	51-55세	33	33.8	19.406	33.9	11.908	20.9	12.528	11.1	7.882
	56-60세	20	40.0	19.467	31.3	12.863	17.5	7.864	11.3	11.571
	61세 이상	13	28.8	19.807	30.9	12.052	22.2	10.221	18.1	11.821
F		4.965		2.496		3.354		2.797		
P		0.000**		0.035**		0.008**		0.021**		
연구경력	5년-10년 미만	6	30.0	8.944	41.7	16.021	20.0	10.954	8.3	7.528
	10년-15년 미만	22	49.5	25.067	28.5	12.561	13.2	13.500	8.9	6.889
	15년-20년 미만	23	46.1	21.844	28.0	10.416	15.4	12.052	10.4	12.873
	20년-25년 미만	32	36.6	17.663	35.3	12.885	18.8	8.614	9.7	6.832
	25년 이상	27	35.0	20.381	31.4	11.143	19.6	9.217	13.7	10.246
F		2.635		2.657		1.516		1.109		
P		0.038**		0.037**		0.203		0.356		
전공	시각디자인	34	35.0	17.495	37.5	12.447	18.1	10.802	9.4	7.859
	제품디자인	37	43.0	21.553	26.7	9.235	18.3	11.438	12.3	10.041
	환경디자인	9	53.9	25.221	25.6	9.167	10.6	10.442	10.0	15.612
	패션디자인	30	39.3	22.141	33.5	13.823	16.8	10.042	10.0	7.656
F		2.229		6.178		1.358		0.639		
P		0.089		0.001**		0.260		0.591		
전체		110	40.4	21.211	31.8	12.457	17.2	10.850	10.6	9.329

살펴보면, 연구경력 10년-15년 미만(78.0%)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년 이상(66.4%)의 경우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최근 5년 내에 발행된 자료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환경디자인(79.5%)의 경우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제품디자인(69.7%)의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가설 h1-4〉의 검증을 위해 연령에 따른 이용자료의 최신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구경력에 따른 결과에서는 최근 1년 이내, 최근 2-5년 이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고, 전공에 따른 결과에서는 최근 2-5년 이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설 h1-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2.5 타 학문분야 정보의 필요정도

〈표 6〉에서 전공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예술분야에 대한 정보는 4.545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심리학(3.564), 사회학(3.482), 인류학(3.4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학(2.564)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인문학, 철학, 역사, 세계사, 의학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표 6〉 타학문분야 정보의 필요정도

전공	건축학	경영학	경제학	공학	사회학	심리학	예술	인류학	컴퓨터학
평균	3,345	3,227	2,564	2,855	3,482	3,564	4,545	3,454	3,309

이러한 결과는 학제적 성격을 띠는 디자인분야의 정보서비스를 위해서 디자인분야는 물론 인접학문 특히 예술, 심리학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4.2.6 자료 유형별 이용정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기타 정보원의 자료유형별 이용현황을 살펴볼 때, 디자인 분야 교수들은 비인쇄자료(3,305), 기타 정보원(3,230), 인쇄자료(3,131)의 순서로 자주 이용하였다(〈표 7〉 참조). 가장 자주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은 인터넷자료(4,127), 단행본(4,009), 정기간행물(3,864), 학위논문(3,514), 전시회 자료(3,391)의 순서로 이용하였으며, 동료연구자(3,382), 외부전문가(3,445), 학회와 심포지엄 토론(3,336) 등의 비공식정보원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쇄자료의 이용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단행본(4,009)을 가장 자주 이용하며, 정기간행물(3,864), 학위논문(3,514), 전

사회 자료(3,391)의 순으로 이용하였다. 비인쇄자료의 이용정도를 살펴보면, 인터넷 정보자료(4,127)와 사진 및 슬라이드 파일자료(3,664)를 평균 이상으로 이용하지만, 전자저널 및 잡지(3,336), CD-ROM, Video, DVD 자료(3,236) 등은 평균 정도로 이용하며, 전자책(2,527)의 이용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 정보원의 이용정도에서, 외부 전문가(3,445), 동료 연구자(3,382), 학회 및 심포지엄 등에서의 토론(3,336)의 순으로 이용하였으며, TV/라디오(2,755)의 이용정도는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기타 정보원, 인쇄자료, 비인쇄자료의 순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최은주 1997).

4.2.7 데이터베이스 이용정도

〈표 8〉에서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국내 데이터베이스(2,201) 이용은 활발하지 않았는데, 그 중 DesignDB(2,855)의 이용정도가 가장 높았지만

〈표 7〉 자료 유형별 이용정도

인쇄자료	유형	정기간행물	단행본	전시회 자료	연구 및 회의 보고서	학위 논문	신문	정부 간행물	특허정보 자료	규격정보 자료	세미나, 워크숍 자료	전체
	평균	3,864	4,009	3,391	3,373	3,514	3,164	2,618	2,009	2,045	3,327	3,131
비인쇄자료	유형	CD-ROM, DVD, VIDEO 자료	인터넷 자료	사진 및 슬라이드 파일	전자저널 및 잡지	전자책	국내DB	외국DB	전체			
	평균	3,236	4,127	3,664	3,336	2,527	3,191	3,055	3,305			
기타 정보원	유형	tv/라디오	동료연구자	외부전문가	학회, 심포지엄 토론	전체						
	평균	2,755	3,382	3,445	3,336	3,230						

〈표 8〉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정도

국내 데이터베이스	평균	외국 데이터베이스	평균
1. DesignDB	2,855	1. Design and Applied Arts Index(DAAI)	2,627
2. KISS	2,764	2. Art Abstracts	2,500
3. RISS	2,409	3. Art Index	2,427
4. 뉴논문	2,355	4. Bibliography of the History of Art	2,236
5. e-Article	2,145	5. Art Full Text	2,191
6. 교보문고스콜라	2,109	6.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2,145
7. DBPIA	2,055	7. Web of Science	2,136
8. KS규격열람	2,009	8. Science Direct	2,009
9. NDSL	1,855	9. EBSCOhost	1,955
10. KRPIA	1,836	10. Grove Art	1,945
11. KoreaA2Z	1,817	11. Emerald	1,918
전체 평균	2,201	전체 평균	2,193

KISS(2,764), RISS(2,409), 뉴논문(2,355) 등과 함께 여전히 이용이 저조하였으며, NDSL(1,855), KRPIA(1,836), KoreaA2Z(1,817)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외국 데이터베이스(2,093)의 이용은 국내 데이터베이스(2,201)보다 조금 더 떨어지며, 그 중 Design and Applied Arts Index(DAAI)의 이용정도(2,627)가 가장 높으며, Art Abstracts(2,500), Art Index(2,427), Bibliography of the History of Art(2,2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가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정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디자인분야 대학교수들이 선호하는 Design and Applied Arts Index(DAAI)는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접근이 불가능하였으며, Art Abstracts(Web), Art Index, Bibliography of the History of Art(BHA), Art Full Text,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등도 소수의 대학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거나 전혀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디자인 분야 연구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주요 데이터

베이스로서 우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도 이들에 대한 구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4.3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분석

4.3.1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빈도

응답자들의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빈도에 대한 결과는 〈표 9〉에서 ‘최소 1개월에 1-2번 정도 이용’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최소 2-6개월에 1번 정도 이용’(27.3%), ‘최소 1주일에 1-2번 정도 이용’(14.5%), ‘거의 이용하지 않음’(13.6%), ‘최소 7-12개월에 1번 정도 이용’(4.5%), ‘최소 1주일에 3-4번 정도 이용’(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 모두 도서관을 1주일에 1번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약 70% 이상으로 나타났던 다른 연구 결과(최은주 1997)와 비교해 봤을 때, 디자인분야 교수들은 도서관을 1주일에 1번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18.1% 밖에 되지 않아 이들의 도서관 이용은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표 9〉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빈도

구분		1주일 3-4 번 이용	1주일 1-2 번 이용	1개월 1-2 번 이용	2-6개월 1번 이용	7-12개월 1번 이용	거의 이용 하지 않음	유의도	
연령	36-40세	빈도(%)	0(0.0)	1(20.0)	2(40.0)	2(40.0)	0(0.0)	x ² =18.038 df=25 p=.841	
	41-45세	빈도(%)	1(4.8)	4(19.0)	9(42.9)	5(23.8)	0(0.0)		
	46-50세	빈도(%)	1(5.6)	5(27.8)	6(33.3)	4(22.2)	2(11.1)		
	51-55세	빈도(%)	1(3.0)	4(12.1)	11(33.3)	9(27.3)	2(6.1)		
	56-60세	빈도(%)	1(5.0)	1(5.0)	8(40.0)	7(35.0)	0(0.0)		
61세 이상	빈도(%)	0(0.0)	1(7.7)	4(30.8)	3(23.1)	1(7.7)	4(30.8)		
연구 경력	5-10년 미만	빈도(%)	0(0.0)	1(16.7)	1(16.7)	3(50.0)	1(16.7)	0(0.0)	x ² =34.077 df=20 p=.026**
	10-15년 미만	빈도(%)	0(0.0)	4(18.2)	11(50.0)	6(27.3)	1(4.5)	0(0.0)	
	15-20년 미만	빈도(%)	1(4.3)	7(30.4)	6(26.1)	7(30.4)	0(0.0)	2(8.7)	
	20-25년 미만	빈도(%)	2(6.3)	1(3.1)	16(50.0)	3(9.4)	1(3.1)	9(28.1)	
	25년 이상	빈도(%)	1(3.7)	3(11.1)	6(22.2)	11(40.7)	2(7.4)	4(14.8)	
전공	시각디자인	빈도(%)	1(2.9)	8(23.5)	16(47.1)	7(20.6)	0(0.0)	2(5.9)	x ² =20.546 df=15 p=.152
	제품디자인	빈도(%)	3(8.1)	2(5.4)	10(27.0)	13(35.1)	2(5.4)	7(18.9)	
	환경디자인	빈도(%)	0(0.0)	2(22.2)	2(22.2)	4(44.4)	1(11.1)	0(0.0)	
	패션디자인	빈도(%)	0(0.0)	4(13.3)	12(40.0)	6(20.0)	2(6.7)	6(20.0)	
전체	빈도(%)	4(3.6)	16(14.5)	40(36.4)	30(27.3)	5(4.5)	15(13.6)		

개인적 배경에 따른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빈도는 '1주일에 3-4번 이용'의 비율과 '1주일에 1-2번 이용'의 비율을 합산해, 즉 1주일에 1번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6-50세, 41-45세, 36-40세, 51-55세, 56-60세, 61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경력별로는 15년-20년 미만의 경우, 1주일에 1번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34.7%로, 다른 그룹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0년-15년 미만(18.2%), 5년-10년 미만(16.7%), 25년 이상(14.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년-25년 미만(9.4%)의 도서관 이용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1주일에 1번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시각디자인(26.4%), 환경디자인(22.2%), 제품디자인(13.5%), 패션디자인(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설 h2-1〉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경력에 따

른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빈도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령, 전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h2-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3.2 소속기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소속기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표 10〉에서 살펴보면, '전공 관련 분야의 자료가 부족해서'(33.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용만으로 충분해서'(32.1%), '최신자료가 부족해서'(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서 자료 부족에 대한 응답이 53.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공자료의 부족'(33.6%)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

〈표 10〉 소속기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전공 관련 자료 부족	최신자료 부족	정보서비스 부족 및 불만족	연구실과 도서관의 거리가 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용으로 충분	기타	전체
빈도(%)	46(33.6%)	27(19.7%)	4(2.9%)	9(6.6%)	44(32.1%)	7(5.1%)	137(100.0%)

* 복수응답 허용

나 대학도서관에서는 전공별 전공자료의 확보에 자료수집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4.3.3 정보서비스 이용정도

소속기관 도서관 제공 정보서비스 이용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표 11〉 참조), 응답자들은 자료 열람 및 대출

서비스(3,349), 온라인 데이터베이스(3,165), 원문복사서비스(2,596) 등의 극히 기본적인 정보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고, 나머지 정보서비스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6-40세 연령으로서 연구경력이 10년 미만인 응답자들이 자료 열람 및 대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표 11〉 정보서비스 이용정도

구분	빈도(명)	자료 열람, 대출서비스		원문복사 서비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상호대차 서비스		최신정보 주지서비스		SDI서비스		참고봉사 서비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연령	36-40세	5	4.200	0.837	3.000	1.414	4.200	1.304	2.000	1.225	1.800	0.837	1.400	0.548	1.400	0.548
	41-45세	21	3.190	1.030	2.524	0.873	3.048	1.161	1.810	0.981	1.952	1.244	1.714	1.007	1.619	0.740
	46-50세	18	3.471	0.943	2.294	0.686	3.235	1.251	1.941	0.748	2.125	0.957	1.938	0.680	1.750	0.577
	51-55세	33	3.424	0.902	2.636	0.859	3.182	1.131	1.636	0.822	1.818	0.917	1.667	0.777	1.455	0.617
	56-60세	20	3.450	0.759	2.800	0.768	3.100	0.968	1.700	0.801	1.850	0.933	1.850	0.933	1.950	0.759
	61세 이상	13	2.769	1.013	2.538	1.127	2.923	1.038	1.615	0.870	1.385	0.650	1.308	0.630	1.308	0.480
F			2.154		0.867		1.040		0.458		0.910		1.134		2.287	
P			0.065		0.506		0.398		0.806		0.477		0.347		0.051	
연구 경력	5년-10년 미만	6	4.200	0.837	3.200	1.304	4.000	1.225	1.800	0.837	1.400	0.548	1.400	0.548	1.400	0.548
	10년-15년 미만	22	3.409	1.008	2.545	0.858	3.136	1.125	1.682	0.780	2.000	0.976	1.773	0.813	1.591	0.590
	15년-20년 미만	23	3.565	0.843	2.348	0.832	3.217	1.347	1.957	1.022	2.182	1.181	1.955	0.999	1.636	0.727
	20년-25년 미만	32	3.156	0.767	2.656	0.787	3.125	0.976	1.594	0.798	1.656	0.865	1.563	0.716	1.625	0.707
	25년 이상	27	3.185	1.111	2.667	0.961	3.037	1.091	1.778	0.847	1.741	0.903	1.630	0.839	1.593	0.694
F			1.931		1.143		0.794		0.640		1.478		1.001		0.136	
P			0.111		0.340		0.532		0.635		0.214		0.411		0.969	
전공	시각디자인	34	3.441	0.927	2.735	0.828	3.412	0.925	1.853	0.744	2.029	0.834	1.971	0.797	1.735	0.618
	제품디자인	37	3.081	0.954	2.270	0.871	2.757	1.188	1.730	0.871	1.750	0.937	1.583	0.692	1.500	0.655
	환경디자인	9	2.875	0.835	2.500	0.535	3.000	1.195	1.500	0.535	1.750	0.886	1.750	0.886	1.500	0.535
	패션디자인	30	3.700	0.877	2.867	0.937	3.433	1.135	1.700	1.022	1.767	1.165	1.500	0.938	1.600	0.770
F			3.344		3.101		2.939		0.425		0.611		2.117		0.786	
P			0.022**		0.030**		0.037**		0.736		0.610		0.103		0.504	
전체		110	3.349	0.946	2.596	0.883	3.165	1.126	1.743	0.854	1.843	0.968	1.694	0.826	1.602	0.669

〈표 12〉 사서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

구분	전혀 받지않음	거의 받지않음	보통이다	다소받음	매우 자주받음
빈도(%)	26(23.6%)	41(37.3%)	30(27.3%)	12(10.9%)	1(0.9%)

〈표 13〉 사서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구분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음	사서의 관련 분야 전문성 떨어짐	사서의 태도 무성의, 불친절	기타	전체
빈도(%)	78(71.6%)	26(23.9%)	1(0.9%)	4(3.7%)	109(100.0%)

* 복수응답 허용

패션디자인 전공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열람 및 대출서비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원문복사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디자인분야 연구자들을 상대로 연구한 김규훈(2004)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정보서비스 이용정도는 자료 열람 및 대출서비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서비스 이용정도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설 h2-2〉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 연구경력에 따른 정보서비스 이용정도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지 전공별 자료 열람 및 대출서비스, 원문복사서비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설 h2-2〉는 모두 기각되었다.

4.3.4 사서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

사서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를 〈표 12〉에서 살펴본 결과, 사서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비율은 11.8%에 불과하고, 받지 않는 비율은 60.9%에 달하여 응답자들은 사서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도서관 사서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을 하도록 요구하여 92명이 109건의 복수응답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소속기관 도서관 사서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 71.6%, '사서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가 23.9%를 차지하였는데, 사서의 주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재교육 등을 통한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의 디자인분야 교수 전공분야를 세부전공에 따라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환경디자인의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110명의 응답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분야 교수들에 대한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고 방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디자인분야 교수들은 학회, 전시회 자료, 세미나 자료 등의 비공식적인 회색 정보원(gray literature)을 많이 이용하므로 전문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대학도서관도 디자인 분야 회색자료의 수집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자인분야 교수들은 인쇄자료보다 비인쇄자료를 더 자주 이용하며, 특히 인터넷 정보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전공별로 웹정보 디렉토리를 구성하고, 양질의 인터넷 정보원을 주제별 또는 전공별로 수집하여 웹자료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점대학 간에 학문분야별 웹정보원 수집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웹정보원 디렉토리를 구축 및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외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이용은 매우 저조하였는데,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DesignDB는 디자인 관련 동향정보, 디자인 뉴스, 트렌드, 연구자료, 논문, 이미지파일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수한 데이터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았으며, 외국의 우수한 데이터베이스로 알려진 Design and Applied Arts Index(DAAI), Art Abstracts, Art Index 등의 활용도 매우 미흡하였다. 특히 이미지 링크를 제공하는 Grove Art Online이나 Art Index, Art Full Text도 예술 및 디자인분야 매거진 속에 이미지를 색인하는 우수한 DB로서 이미지 자료를 자주 이용하는 디자인분야 교수들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이미지자료 정보원이다(김순희 2005). 디자인 교수들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관련학과가 설치된 국내대학의 도서관에서 디자인 분야의 중요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구

비하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디자인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디자인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도서관에서는 국내·외 디자인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도서관에서는 디자인 분야 교수들을 상대로 디자인 분야의 핵심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인식하고 사용, 평가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제별 맞춤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 분야는 신소재 및 첨단 가공기술 정보 등을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고, 형태와 기능의 혁신으로 소비자 기호 및 생활습관에 대한 트렌드 정보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접목시켜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다른 분야 연구자들보다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야는 단일의 학문분야가 아니라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인접학문의 연구경향과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기술을 따라잡는 일이 다른 분야 교수들보다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다섯째, 과반수 이상의 이용자가 전공자료의 부족과 최신자료의 부족 때문에 소속기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해당대학 도서관의 자료수집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전공자료 우선수집정책을 수립하여 학과 교수들이 전공자료 부족을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대학 도서관에서는 학과별 예산 안배, 자료의 대출과 이용, 순환을 등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자료 수집정책을 수

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가설 검정을 시행한 결과, 개인별 특징과 정보입수경로를 살펴본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채택되었거나 기각되었다. 추

후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세부적인 변인을 조작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결과를 토대로 심층면접 등의 질적방법을 병행한다면 보다 충실한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규훈. 2004. 『산업디자인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병주. 1999. 대학교수들의 학술정보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0: 29-54.
- 김순희. 2003. 디자인학분야 문헌의 인용분석 연구: 시각, 제품, 환경디자인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 233-244.
- _____. 2005. 『디자인분야 정보문해 교육모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태승. 1996. 과학기술자들의 정보환경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1): 5-18.
- 나수임. 2002. 디자인대학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디자인연구』, 11: 1-24.
- 박일중, 백수연. 2001. 전자공학전공 대학원생들의 학술정보 이용행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31-58.
- 박준식 외. 2000. 대학교수들의 학술정보원 이용행태분석: K대학의 사회과학 교수집단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7(3): 21-43.
- 변성희 외. 2002. 한의학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3(2): 1-18.
- 송중호, 오동근. 2008. 국방연구개발 연구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9(2): 1-25.
- 이승채. 1987. 물리학자들의 학술정보 이용과 전달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 124-153.
- 이준영 외. 2003. 국가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지』, 11: 401-425.
- 최은주. 1996.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4): 13-38.
- 최은주. 1997.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특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4(1): 27-45.
- 한국디자인진흥원. 1998.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인력현황 및 실태조사』. 분당: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8. 『디자인 관련 고등교육기관 인력현황 및 실태조사』.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한국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
- Brown, C. M. 1999.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scientists in the electronic information age: astronomers, chemists, mathematicians, and physicists." *JASIS*, 50(10): 929-943.
- Chen, C. C. 1974. "How do scientists meet their information needs?" *Special Libraries*, 65: 272-280.
- Chung, L. T. 1990. *Social science reference sources: a practical guide. Rev. and Enl.* 2nd Ed. New York: Greenwood.
- De Tiratel, S. R. 2010. "Accessing information use by humanists and social scientists: a study at the Universi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6(5): 346-354.
- Ellis, D., D. Cox, and K. Hall. 1993.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researchers in the physical and social sciences." *Journal of Documentation*, 49: 356-369.
- Majid, S., M. A. Anwar, and T. S. Eisenschitz. 2000.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agricultural scientists in Malaysia." *Library Research*, 22(2): 145-163.
- Marouf, L. and M. A. Anwar. 2010.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the social sciences faculty at Kuwait University." *Library Review*, 59(7): 532-547.
- Stieg, M. 1981. "The information needs of historia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6(6): 549-560.
- Strautz, E. 1992. *User satisfaction at the Columbus College of Art & Design: a measure of library effectiveness.* Masters Thesis, Kent State University.